

미전자유통시장 진출

남성

카오디오와 스피커 전문업체인 남성이 미국 전자유통시장에 진출한다.

남성은 자가브랜드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전자유통회사인 오디오팩스와 합작으로 뉴욕에 유통법인을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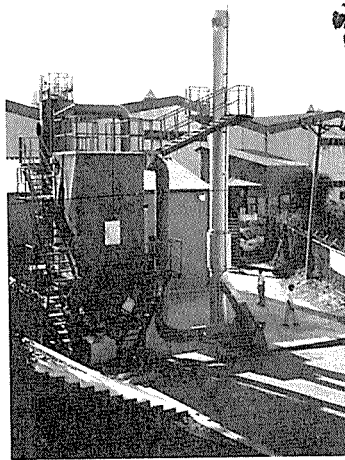
이번에 신설되는 법인은 연간 4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오디오팩스사의 AV사업부문을 인수해 운영하는 것으로 남성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오디오팩스사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내 620여개의 거래선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합작법인은 총 사업규모 300만 달러로 남성이 90%의 지분인 270만 달러를 출자하고 오디오팩스사가 10%인 30만달러를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되는데, 남성의 미국 전자전문 유통회사 인수는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남성은 기존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수출에서 탈피해 자사 브랜드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판매기지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동향 분석 및 신제품 개발 추이 등을 파악,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오산 폐가전 소각로' 가동

대우전자



대우전자는 오산 물류센터에 폐가전 소각로를 새롭게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우전자가 이번에 모두 3억2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폐가전소각로는 한시간에 200kg씩 연간 480톤에 달하는 폐가전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냉식의 냉각방법을 통해 연소시 1,500도에서 1,800도까지 올라가는 소각로를 냉각시킴으로써 그동안 수냉식으로 냉각시킬 때 배출되던 수증기를 모두 제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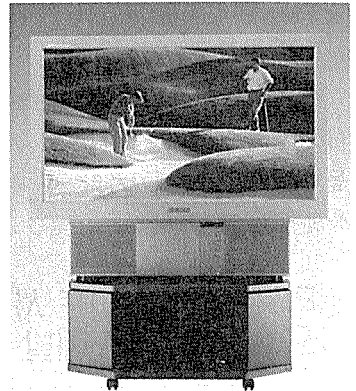
이 회사는 특히 매년 강화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소각로 설치기준에 따라 99년도 환경수치에 맞춰 폐가전 소각로를 설치했다.

대우전자는 이번 소각로 설치를

계기로 25,000대의 폐가전 및 관련 포장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으며, 인근지역인 오산·성남 등 경기지역을 비롯해 강릉·원주 등 강원지역과 영남지역의 폐가전제품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최초 50인치형 LCD 와이드 프로젝션 TV 개발

대우전자



초대형 TV의 가정용 수요증가 및 올초 교육부의 교육선진화 조치와 관련, 국내 프로젝션 TV의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우전자가 국내업계 최초로 3판식 LCD(액정) 타입의 대형 프로젝션 TV를 개발,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이번에 대우전자가 개발한 와이드 프로젝션 TV 「개벽 LIQUID

CRYSTAL」(DTW - 50HD) 은 국내 최초 50인치형의 대형 와이드 화면에 다양한 색상과 선명도를 표현하는 LCD 패널 3개를 탑재해 화소수(화질의 해상도 결정하는 화면구성 입자수)를 기존 75만화소에서 154만화소로 2배 이상 확장함으로써 초선명, 고화질의 화면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화면의 선명도를 좌우하는 주사신수를 기존 525라인에 비해 2배 확장한 1,050라인의 더블스캔 기술을 채용해 대형화면이 될수록 화면이 거칠어지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3차원 디지털 Y/C 분리회로를 채용, Y(휘도 : 밝기) 신호와 C(크로마 : 색상) 신호의 불완전한 분리에서 오는 색번짐이나 깜박거림 현상을 완벽히 제거했다.

특히 「개벽 LIQUID CRYSTAL)은 기존 29인치형 CRT TV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국내 최경량박형(깊이 490mm, 무게 42kg) 제품으로, 설치 및 이동이 편리한 공간절약형 디자인 설계를 통해 학교나 관공서 등의 대형장소는 물론 가정에서도 공간제약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혼합가습기 첫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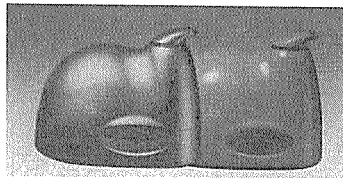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열·초음파 혼합가습과 초음파 가습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가습기 2개 모델(모델명 RHH-4530F/4531F)을 개발, 시판한다.

이 제품은 대우전자가 지난해 개발한 가열·초음파 혼합식 가습기에 별도로 초음파 가습방식을 추가, 두가지 방식을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섭씨 85도의 고온살균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생물 및 증저온성 세균번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균물통 및 공기정화 필터를 채용해 위생기능을 강조했다. 기존 가습기에 비해 50~70% 많아진 600cc/h의 가습량으로 넓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적합한 것이 장점이다.



USB포트 내장 모니터 개발

대우전자

대우전자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USB(Universal Serial Bus)포트를 내장한 모니터를 개발, 4·4분기 이후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 제품은 USB 표준규격 마련을 위해 미 IBM·컴팩·인텔·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하고 있는 USB포럼에서 규정한 표준규격을 100% 지원해 키보드·마우스·조이스틱과 같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모니터에 연결하면 재부팅을 하지 않고도 컴퓨터가 켜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작업이 가능하며 여러개의 키보드를 한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명이 동시에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모니터 받침대에 USB포트를 설치해 사용자가 키보드·마우스 등을 컴퓨터 본체가 아닌 모니터에 직접 탈·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편의성을 높였으며 윈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모니터의 밝기·크기·색상 등 주요 화면특성을 마우스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초고속 3차원 VGA보드 출시

두인전자

두인전자는 RD램을 기본으로 장착해 기존 D램에 비해 처리속도를 대폭 높인 초고속 3차원 가속 VGA보드인을 공급한다.

이 제품은 윈도 95의 플러그 앤드 플레이 및 디렉트 3D 기능

을 완벽하게 지원해 윈도 95용 게임은 물론 다양한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폭넓은 호환성을 지닌다. 또한 고속 텍스처 매핑 기능에 의한 3차원 가속기능을 채택해 3차원 게임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차세대 영상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에 대응하는 디지털 영상 입력포트(VMI)를 제공해 DVD 화면을 720×480의 고해상도로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다기능 고속 복사기 개발

롯데캐논

롯데캐논은 다양한 첨단장비를 기본 장착해 분당 35장(A4용지)을 복사할 수 있는 다기능 고속복사기 「LC-2000FS」를 개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원고 자동 공급장치(ADF)를 기본 장착해 서로 다른 원고를 자동으로 이동시키면서 복사를 할 뿐만 아니라 4단 카세트를 보유해 A3~B5까지 다양한 용지를 공급할 수 있어 용지 크기별로 카세트를 일일이 갈아 끼우는 불편을 없앴다.

또한 50장까지 급지가 가능한 멀티피더를 내장해 OHP필름 등을 다량 복사할 수 있으며 단일 토너만으로 복사가 가능한 일성분

토너 사용으로 소모품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과전압 흡수소자 개발

백산정공

백산정공이 낙뢰 등 이상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과전압 흡수소자를 개발, 시판에 나선다. 이 제품은 과전압을 불꽃으로 방출하는 방전관형으로 과전압 흡수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배리스터보다 반응시간이 빠르고 잔류파를 최소화해 주는 것이 장점이다. 백산은 이번에 개발한 200V·300V·400V용 제품을 월 100만 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국 통신규격 내장한 '복합칩'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세계의 통신규격을 모두 내장한 통신규격 복합칩을 개발, 각종 사무용 통신기기의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국가별로 상이한 통신규격을 하나의 칩에 모두 구현한 지능형 가입자 접속장치(ILIU : Intelligent-Line Interface Unit)칩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칩은 그동안 나라마다 서로 다른 통신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종 통신기기를 국가별로 별도로 개발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수출용 통신기기의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통신기기의 전화부분과 데이터 통신부분의 가입자접속부를 통합해 부품수를 최대 45%까지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통신규격 복합칩이 개발됨에 따라 통신기기의 전세계 동시출시가 가능해져 9월 말부터 독일 BMW사에 ISDN 전용팩스를 수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서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사무용 통신기기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칩 국내 첫 수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국내 처음으로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수출한다.

지난해 10월 미국 DEC와 기술 제휴를 통해 알파칩의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삼성은 최근 기흥 5라인에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미국과 일본의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업체를 대상으로 첫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는 알파칩 「KP 21164」는 속도가 533MHz로 전세계 시판되는 CPU 중 최고의 데이터

처리속도를 갖고 있으며 윈도NT와 유닉스를 채용한 워크스테이션과 서버에 적합하다.

또한 이 알파칩은 DEC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되며 데이터를 64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회로설계를 통해 탁월한 부동소수점처리 능력을 구현, 3차원 그래픽·CAD·동영상·가상현실·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영상 등의 비주얼컴퓨팅 환경을 주도할 차세대 CPU라고 삼성측은 밝혔다.

‘V칩 디코더’ 세계 첫 개발

아진비전

TV 폭력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장비인 「V칩 디코더」를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해 방송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캐나다 등에 대량 수출한다.

아진비전은 최근 세계 최초로 V칩 디코더를 개발, 캐나다 케이블TV 방송장비 공급업체인 트라이비전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부터 600만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20만대의 V칩 디코더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트라이비전사를 통해 매월 10만대 규모의 V칩 디코더를 캐나다는 물론 미국·호주 등 V칩 방송을 실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V칩 디코더는 TV의 폭력물 및

음란물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V칩을 내장한 첨단장비로 7개로 나뉜 방송프로그램을 등급별로 구분,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의 경우 비밀 코드를 입력해야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디코더만 구입, 설치하면 일반 가정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미국·캐나다·호주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청소년들을 유해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법을 개정, 내년부터 V칩 방송방식 채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V칩 디코더의 폭발적인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 국내 첫 개발

LG전선

LG전선은 최근 지하매설용 전력케이블로 국내 처음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유해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LG전선의 무독성 난연 지중 전력케이블은 우리나라 기간 배전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XLPE) 절연 22.9kV급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터널식 전력구나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플랜트·정유공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LG전선이 지난 96년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개발에 성공한 이번 전력케이블은 폴리올레핀계 난연 재료를 사용, 유해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독성가스로 인한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DIVX 기술 적용한 DVD플레이어 연내 양산

LG전자

LG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디지털 비디오 익스프레스(DIVX)」 기술을 채용한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플레이어 생산에 나선다.

LG전자에 따르면 미국의 제니스사가 DIVX기술을 채용한 새로운 DVD플레이어를 내년 봄부터 미국 시장에서 출시하겠다는 계획에 맞춰 이 DVD플레이어를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생산, 전량 제니스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DIVX기술을 적용한 DVD 플레이어 생산과 관련해 이미 오래전부터 양사간에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밝히며 빠르면 올 연내로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X기술을 적용한 DVD타이틀은 기본적으로 48시간 동안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

며 더 보고자 할 때는 DVD플레이어에 장착된 모뎀을 통해 타이틀 사용시간을 연장한 후 추가요금을 내면 된다.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은 DVD타이틀을 기존 DVD타이틀 구입가격의 20~30% 수준인 5달러에 구입할 수 있고 타이틀 제조업체들은 무단복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플레이어에 DIVX타이틀을 판독할 수 있는 전용 보드와 통신 및 보안 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기존 DVD플레이어보다 소비자 가격이 대당 100달러 정도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0인치 PDP 첫 개발

LG전자

LG전자가 작년 2월부터 90여명의 연구인력과 50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국내에서는 최대 크기인 40인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패널(PDP)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선보인 40인치급 PDP는 컴퓨터 모니터 수준인 VGA급(640×480 도트) 해상도에 화면 밝기가 브라운관(CRT)을 능가하는 330칸델라를 실현, 기존 TV보다 밝고 화질이 선명하며 교류형(AC) 구동방식을 채택, 내구성이 우수하고 수명도 매우 길다.

또한 화면 크기가 CRT를 훨씬 능가하는 40인치이면서도 전체 두께가 CRT의 10분의 1 수준인 15cm로 얇고 무게도 CRT의 6분의 1인 18kg 정도로 가벼우며 상하좌우 시야각도 CRT에 버금가는 160도로 어느 방향에서나 뚜렷한 화면을 볼 수 있다.

특히 LG전자는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PDP의 핵심기술인 구동회로분야의 독자 기술력을 확보, 151건의 국내 특허와 21건의 해외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40인치 PDP 개발 성공을 바탕으로 PDP를 차세대 승부사업으로 선정, 최대 60인치에 이르는 PDP의 개발에 연구개발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앞으로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입, 연간 12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춰 오는 2005년에는 1조2,000억원의 매출을 달성, 세계시장의 12%를 점유할 계획이다.

PC기능 첨단화 박차

LG-IBM

LG-IBM이 PC에 다양한 첨단기능을 내장, 경쟁업체와의 제품 차별화에 적극 나선다.

LG-IBM은 최근 시판에 들어간 멀티미디어 PC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 있는 「얼굴인식기능」을 채용했으며 업무용 PC에는 LAN 기반의 네트워크 상에서 꺼져 있

는 PC를 원격관리할 수 있는 「wake-on-LAN」기능을 내장했다고 밝혔다.

얼굴인식기능은 사용자의 얼굴을 PC에 부착된 카메라로 입력한 후 암호로 등록하면 다음 부팅시 사용자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기만 하면 PC가 스스로 그 얼굴을 인식해 등록된 얼굴과 일치할 경우에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인텔리전트 기능이 다.

이에 따라 일일이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할 뿐 아니라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컴퓨터 보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LG-IBM측은 밝히고 있다.

PDP 국내 첫 양산

오리온전기

오리온전기가 내년 3월부터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패널(PDP)을 양산한다. 오리온전기는 최근 16대 9화면비율의 와이드형 40인치 PDP 개발을 마쳤으며 이 제품의 성능이 제품화에 적합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리온이 내년 3월부터 PDP 생산라인의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16대 9 화면비율의 40인치 PDP 개발은 물론 PDP 양산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앞서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LG전자가 4대 3 화면비율의 40인치 PDP를 최초로 개발했으나 양산은 200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리온전기는 공사가 진행중인 구미 PDP공장의 설비도입 작업을 최대한 앞당겨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와이드형 40인치 PDP생산라인을 시험가동, 내년 3월 양산도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오리온전기가 구미공장에 도입 중인 PDP 생산라인은 월 3천장의 유리기판을 투입할 수 있는 있는 소규모 설비지만 각종 장비가 모두 인라인으로 연결된 자동화라인이다.

FED 개발 제휴

오리온 전기

오리온전기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소재 FEPET사와 다이아몬드 박막을 이용한 전계방출 디스플레이(FED)를 공동 개발키로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양사는 앞으로 3년동안 FEPET의 경우 다이아몬드 박막기술을, 오리온전기는 이를 이용한 FED 모듈 제작기술을 각각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획득되는 모든 기술정보를 상호 공유하게 되는데 우선 4.5인치 컬러 FED의 개발에 전력할 방침이다.

오리온측은 이번 제휴로 FEPET

사로부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다이아몬드 박막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으며, FEPET사는 오리온 전기로부터 FED 모듈 제작기술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등 양사가 각자 취약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어 연구개발 기간과 자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리온전기는 그러나 다이아몬드 박막을 이용한 FED 제작기술과 병행해 그동안 주력해온 마이크로 칩을 이용한 FED의 자체 연구개발도 계속 추진할것 이라고 밝혔다.

노트북용 펜티엄 MMX

인텔코리아

인텔코리아는 기존 노트북용 프로세서에 비해 50%까지 소비전력을 낮춘 노트북용 펜티엄 MMX 마이크로프로세서 제품 2가지를 발표했다.

200MHz 및 233MHz 2가지로 공급되는 이 프로세서는 인텔에서는 처음으로 0.25미크론 공정기술을 적용, 프로세서 코어 전압과 인터페이스 전압을 낮춤으로써 소비전력을 크게 절감했다. 또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장치, 대용량 HDD, 고속 CD롬 드라이브, 그리고 DVD드라이브까지 장착할 수 있게 해 멀티미디어 데스크톱PC와 같은 수준으로 노트북 PC 성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인텔측은 이 제품을 노트북PC 용으로 개발된 패키징 방식인 인텔모빌 모듈 방식으로 공급한다.

중국에 오디오공장 설립 추진

태광산업

태광산업이 중국에 오디오 생산공장을 확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국내 인건비 상승과 외산 저가 오디오의 수입급증 등으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사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중국에 오디오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우선 중국의 오디오 업체로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은 뒤 점차 주문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오디오공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의 기존 오디오업체를 인수하는 것과 부지를 확보한 뒤 생산시설 등을 국내에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광산업은 중국에 오디오공장이 확보되면 이곳에서는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중저가 오디오를, 국내 안양공장에서는 하이엔드 오디오 및 하이파이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제품들을 생산하는 이원화된 방식의 체제를 가

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덴서 제조용 핵심장비 99년까지 개발

필코전자

콘덴서 및 저항기 전문업체인 필코전자가 그동안 대부분 수입해 온 콘덴서 제조용 핵심공정장비를 개발한다.

필코전자는 최근 통상산업부로부터 공업 기반기술 개발자금 3억4천7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99년까지 콘덴서의 핵심장비인 초박막필름 고속 권취기와 초소형 필름 콘덴서소자 자동전압처리 및 선별검사기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코측은 이번에 개발할 초박막 필름 고속 권취기는 스위스 메타사 및 일본의 니세이 아코트로닉스, 가이도 등 기존 업체들의 장비에 비해 사용가능한 필름의 두께가 1.0 μ 급으로 절반 이하 수준이고 콘덴서의 리드피치는 5mm, 생산속도는 시간당 1만개로 5배 가량 빠른 성능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자 전압처리 및 선별기도 생산속도가 기존 기계에 비해 3배가량 빨라 경쟁우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1차연도에 초박막필름 고속 권취기를 개발하고 2차연도에는 소자 자동전압처리기 및

선별기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차세대 커넥터에 집중 투자

한국단자

한국단자공업이 차세대 커넥터 개발을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단자는 올 초 개발인력 확충을 계기로 개발부를 개발1실과 2실로 나눠 커넥터 개발을 분담토록한데 이어 최근엔 기존의 부설 연구소를 중앙연구소로 신규등록해 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CAD설비를 3차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커넥터 개발에 수십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커넥터 개발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발1실에서 각종 광 수동부품을 비롯한 통신용 커넥터와 차세대 자동차용 커넥터 등 신규제품의 선행 개발에 주력하고 개발2실에서는 단기간내에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동차용 및 가전용 커넥터 등 양산제품의 개발을 전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커넥터용 페룰 공급

한국몰렉스

한국몰렉스가 광커넥터(점퍼코

드)의 핵심부품인 페룰을 국내시장에 본격 공급한다.

한국몰렉스가 공급하는 페룰은 광케이블로 광케이블과 광케이블 사이를 연결할 때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하는 세라믹 가공품으로 초정밀 가공기술이 필요하고 플라스틱과 금속가공을 주로 하는 기존 커넥터 양산기술과 달라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의 교세라 등으로 부터 공급받아왔다.

이 회사가 이번에 국내시장에 선보이는 페룰시리즈는 페룰 단면을 사전에 연마함으로써 지금까지 광커넥터 생산업체들이 직접 하고 있는 연마가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업공정을 50% 이상 줄일 수 있고 공차관리가 용이해 고객의 사양에 따른 초정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면 안테나 개발

한새전자

RF부품업체인 한새전자기기가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용 평면안테나를 개발, 안테나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한새전자기기는 95년부터 정부 지원자금 3억4천만원을 투입,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용 고성능 평면안테나와 저잡음증폭기(LNB)를 개발해 월 3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10월부터 본격 양산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개발한 평면안테나는 가로 및 세로가 33×33cm로 소형 이면서도 주파수 이득이 87dB로 높고 특히 가격이 기존 파라볼라 안테나와 비슷한 3만원선에 불과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득이 높아 실내설치가 가능하고 간편해 설치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선 네트워크장비 발표

한국IBM

한국IBM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에 전화선을 연결하지 않고 컴퓨터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장비를 발표했다.

「코드리스 컴퓨터 커넥션」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건물벽의 전화선 잭에 장착하는 기본장치와 노트북·데스크톱 PC의 모뎀에 설치하는 원격장치로 구성돼 있다.

이 제품은 전화선 잭으로부터 반경 60m 범위 내에서 온라인 서비스 접속이나 웹검색, 전자우편 및 팩스 등 컴퓨터통신을 할 수 있다.

또 이들 장비는 x2 및 K56 플렉스 등 56kbps 고속전송 기능을 지원하며 PC내에 별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품은

900MHz 무선주파수를 사용하며 통신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채널스캔 및 보안코드 등 기능을 채용했다.

인터넷폰 내장 노트북 출시

한국에이서

한국에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폰 솔루션을 내장한 고성능 노트북PC 「익스텐사 355」를 개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인텔 펜티엄 133MHz CPU에 16MB 메모리, 1.44GB 하드디스크, 8배속 CD롬 드라이브를 내장하고 11.3인치 DSTN LCD (액정표시장치)를 채택했다. 또한 인터넷폰을 비롯해 인터넷TV 및 라디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솔루션을 기본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체 내장된 타입 II PCMCIA카드를 이용해 자유로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한국에이서는 특히 익스텐사 355가 인터넷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라는 점에 착안, 해외연락업무가 많고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회사원, 학생, PC마니아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20Gbps급 광송신 모듈 국내 첫 개발

현대전자

현대전자가 국내 처음으로 파장분할다중(WDM)방식을 이용한 광송신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광통신시스템에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바꾸어 광케이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 모듈은 기존 전화선 24만 4천회선 분량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초당 200억개의 신호전송(20Gbps)이 가능하도록 광섬유에 여러 파장의 신호를 한꺼번에 묶어 보내 전송속도를 증가시키는 WDM방식의 첨단 광통신기술을 적용했다.

이번에 현대가 개발한 WDM광송신 모듈의 핵심소자는 장거리 통신에 필수적인 1,550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파장대의 분포계 환형 레이저다이오드로 현대는 이 레이저다이오드가 집적된 어레이 형태의 8채널 송신모듈로 개발중이다.

기존 시간분할다중(TDM) 방식은 전기적 한계로 인해 10Gbps급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시 변조가 어렵고 광케이블을 새로 교체해야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8채널 WDM 광송신 모듈은 8개의 파장을 갖는 모듈을 각각 2.5Gbps로 변조해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다고 현대측은 밝혔다.